

NCC, 중질NGL 생산 표면화

석유사업자유화로 96년 가시화될 듯 ... 휘발유 판매망 마련이 걸림돌

석유사업자유화가 당초 예정년도인 97년에서 2년정도 앞당겨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간이정제시설 허용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NCC업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내 NCC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94년12월 발표한 석유사업전면자유화방안(95년 하반기 시행예정)에 따라 그동안 중질 NGL 생산에 걸림돌이 되어온 간이정제시설이 시장자유화와 동시에 허용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나프타대체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중질NGL 수급현황 (단위 : 1000M/T, %)					
구 분	수 요		계	공 급	
	내수	수출		생산	수입
1991	5,741	-	5,741	-	5,741
1993	5,759	-	5,759	-	5,759
1994(상반기)	2,889	-	2,889	-	2,889
1994(하반기)	2,889	-	2,889	-	2,889

석유사업자유화의 기본내용

- 국내석유제품가격의자유화
- 원유및석유제품의수출입자유화
- 석유생산및유통부문에있어서의신규진입자유화
- 대외개방
- 정부의역할은최소화
- 제도의정립자및공정한경쟁의감시자
- 비상시를대비한제도적장치의관리

실제로 나프타 대체원료로서의 중질 NGL 생산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대림산업을 비롯한 삼성중합화학, 현대석유화학 등이 이같은 정부방침을 바탕으로 중질NGL 설비공정상의 기술적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시장성 평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업이 나프타대체화 사업에 뛰어들 경우 실질적인 잠정대체효과는 대림산업이 126만5000톤, 삼성석유화학 63만3000톤, 현대석유화학 38만톤, 호남석유화학 38만톤, 한화중합화학 38만톤, 대한유화 27만1000톤 등 모두 368만9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질 NGL분해시 나프타와 거의 같은 비율로 생산되는 휘발유에 대한 판매방안을 놓고 NCC기업들의 입장이 확실치않아 막대한 시설투자를 통한 시장참여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 것 인지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NCC업계의 중질NGL 생산참여 문제는 채산성을 이유로 한 휘발유 판매방안이 마련된 이후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알려져 잠정대체효과가 큰 일부기업의 발빠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의 시장참여는 빨라도 96년 이후쯤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중질NGL은 할당관세(1%)와 NCC 업계에 대한 간이정제시설 불가로 현재까지는 정유사만이 100% 수입해 전량 휘발유믹싱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입량은 91년 574만1000톤, 93년 575만9000톤, 94년 577만8000톤(추정)으로 집계됐다.

수입은 인도네시아가 전체의 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UAE가 25%, 카타르가 16%를 차지하는 등 93년 수입액이 9억2000만달러를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995/3/13>